

“전세계 어디를 가나 위키백과(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은 저작권 이야기를 한다.”

박경신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오는 **23일** 위키컨퍼런스 서울 **2016**에서 저작권 강의...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협업 모델 제시.

“전세계 어디를 가나 위키백과(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은 저작권 이야기를 한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위키백과 창립자 지미 웨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지만 여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와는 달리 저작권에 매우 엄격하다. 한국어 위키미디어 커뮤니티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위키컨퍼런스 서울 **2016**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는다.

박 교수는 “어떤 것이 저작물인가? 어떤 것이 저작물이 아닌가?”부터 파노라마의 권리까지 위키백과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강의할 예정이다. 파노라마의 권리는 실외에서 건축물이나 조각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없이 자유롭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노라마의 권리는 전세계 위키백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다.

박 교수에 이어 류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이 에디터톤(edit-a-thon)을 통한 협업 방식을 제안한다. 에디터톤은 편집 마라톤이란 뜻으로, 참가자들이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 한 주제를 가지고 위키백과 문서를 편집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여성과 예술을 주제로 하여 서울시립미술관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판타시아 에디터톤이 작년 9월에 열렸으나, 에디터톤은 위키백과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나 일반인에게나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이승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시립대 중어중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키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리포트 작성시 위키백과를 출처로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위키백과 콘텐츠를 이용한 국어 수업 모형 등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공유된다.

사회는 최근 출간된 <검색, 사전을 삼키다>의 저자인 정철이 맡으며,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다. 현장 접수도 가능.

※사무국([office@wikimedia.kr](mailto:office@wikimedia.kr) 070-4006-7220)으로 문의 주시면 오전 10시에 기자 간담회도 가능합니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일시: 2016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45분

문의: [office@wikimedia.kr](mailto:office@wikimedia.kr) 070-4006-7220

참가비: 무료

기념품: 기념 티셔츠 (선착순 100명), 정철 저, <검색, 사전을 삼키다> (선착순 10명)

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백:컨2016>

[CC0](#)로 배포. 자유롭게 재배포, 이용 가능.

